

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술직, 대담한 性

비뇨기과의로 개원한지 12년 이상되면서 느끼는 것은 갈수록 소아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아 포경수술을 많이 하는, 이른바 '시즌'인 겨울 방학 때 아이 고추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며 심각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담하는 부모들이 많다.

문제는 이같은 비만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데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식생활을 보면 김치 등 채소 종류는 거의 먹지 않는다. 고작 학교 급식에서나 쟁겨 먹는 정도다.

트릭 먹음거리만 먹는다. 어렸을 때부터 건전한 먹음거리가 매우 중요하데 말이다.

비만은 체지방의 과다 상태로, 열량 불균형으로 음식물의 섭취가 소비를 초과함으로써 초과된 열량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조직에 과잉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각자 자신에게 알맞은 표준체중이 있는데, 이 표준체중보다 120%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을 때 비만이라고 정의한다.

알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등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육식보다는 채식 식단의 주를 이뤘고 먹음거리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만은 풍요, 부와 건강의 상징이었다.

이젠 달라졌다. 경제력이 나아지면서 더 이상 비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외형 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성인병 원인으로 비만이 꼽히는가 하면 소아 비만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비만은 해를 끼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비만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비뇨기과도 마찬가지다. 발기부전으로 오는 비뇨기과를 찾는 환자들 중에도 비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비만이 성기능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비만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하거나 당뇨병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우울증, 불안증을 포함한 정신 질환이나 심인성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다.

흡연과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제의 상식이다. 누구나 알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관리하고 쉰다.

흡연이나 음주보다 비만인 사람에게서 당뇨, 심장병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함께 풀어봅시다 < 2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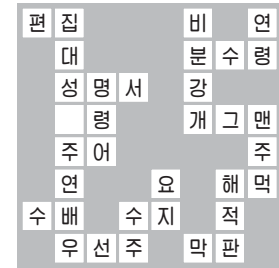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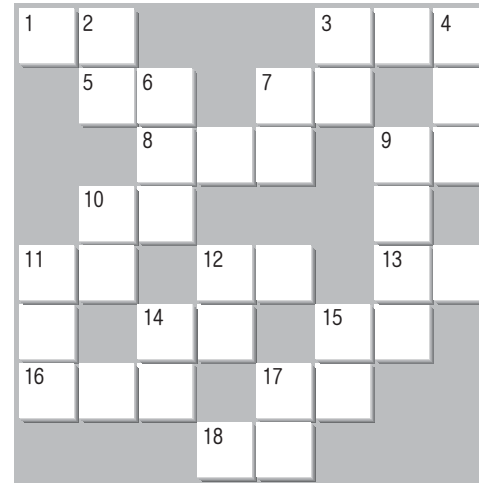
→ 가로풀이

1.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등을 찾아냄. 3.동력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장치. 5.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 7.적은 수효. ~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8.시아버지의 여동생이나 누나를 이르는 말. 9.으뜸의 바로 아래. 또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 10.높은 곳에서 떨어짐. 또는 위신이나 가치가 떨어짐. 11.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동안 잇따라 일어나는 작은 지진을 이르는 말. 12.학교에서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 담임 선생과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인사. 13.살가죽에 생기는 흰백색의 잔 비늘로 특히 머리에 있는 것을 이른다. 14.액체 속에 있는 물질이 밑바닥에 가라앉음. 또는 그 물질. 15.일을 하는 곳. 작업장 또는 직장. 날이 밝아오자 일꾼들은 모두 ~

로 나왔다. 16.기술이 능숙한 기술자나 노동자. 17.남을 대신하여 행함. 대통령 권한 ~. 18.가까이 접근함. ~ 촬영.

↓ 세로풀이

2.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미리 어렵잡아 계산함. 또는 그런 계산 3.운동경기에서 팀이나 선수가 일정기간 동안 치른 경기에서 승리한 수. 4.남에게 맡겨 처리를 부탁한 돈. 6.발을 담은 작은 그릇. 플라스틱이나 얇은 나무판자, 알루미늄 등으로 만든다. 흔히 점심밥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데 쓴다. 7.써서 없앴. 그 차는 연료 ~가 많다. 9.농구에서 종료타임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던진 슛이 골이 되는 일을 이르는 외래어. 10.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 우리 부서는 인력 부족으로 업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사람을 목격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곳으로 규모가 작고 값이 싸다. 보통 여관보다 규모가 작다. 12.전쟁이 끝남. 14.다른 나라를 침범해 공격함. 적의 ~을 저지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다.→침략, 침입. 15.활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무리. 17.위가 넓적하고 운두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 국이나 물 등을 담은 데 쓴다. 사발과 ~.



<함께 풀어봅시다 260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안규선·광주시 북구 운암동 김미정·광주시 북구 중흥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3일(음 6월 10일 戊午)

36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수니 준비 잘하라. 48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60년생 인성은 지금까지, 멋지게 행동하라. 72년생 흥분은 금물 생각과도 행하라. 84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 받는다. 행운의 숫자 : 06,41

37년생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49년생 실물수는 있으나 재물이 들어온다. 6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73년생 수족의 불행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85년생 오늘날 일을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3,27

38년생 주변의 변화가 손재로 들어오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0년생 새로운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62년생 아내의 건강도 살펴봐라. 74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 행운의 숫자 : 23,43

39년생 재물과 처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봐라. 51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63년생 재사가 불리하다. 75년생 험악 달랠려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2,32

40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아내와 이해가 부족 되니 대화가 필요하다. 52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지만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4년생 흥분보다 깊이 더 많은 안심하고 보내라. 76년생 불행이면 시비를 휘달려라. 행운의 숫자 : 18,42

41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3년생 총화기가 발동하면 망신수가 발생한다. 65년생 뒤를 한번 돌아봐라. 77년생 기강철호한 황제수가 있고 노력이 비해 대가가 증가 된다. 행운의 숫자 : 10,28

42년생 슬픔도 기쁨도 한꺼번에 나타난다. 54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66년생 이렇사람과 금전거래는 가능한 피하라. 78년생 소탐대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2,37

43년생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은 내어주라. 55년생 일일일일,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67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두리는 자신이. 79년생 효도도 중요하나 자신교육은 미래의 행복이다. 행운의 숫자 : 0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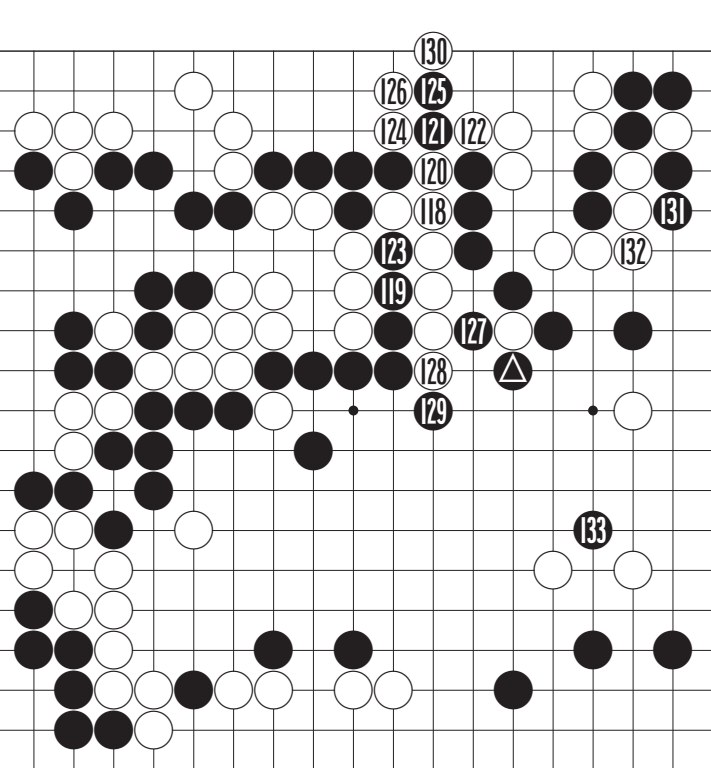
44년생 골짜기 속에 벌이 나니 절대로 가지마라. 56년생 상황에 따라서 사비 돈만 분실할 수도 있다. 68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80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나 쉽지않은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4,39

45년생 제일 귀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 예의를 지키라. 57년생 무촌의 부부도 예의를 지키면 사람은 두 배가 되리라. 69년생 자기자랑보다 동료들 칭찬하라. 81년생 이성을 만나보라 좋은 전령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0,16

46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58년생 나에게 불리한 일을 내 탓으로 생각하면 만사가 곤란하다. 70년생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이다. 82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때다. 행운의 숫자 : 22,33

47년생 지출도 투자로 생각하라. 59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으로 세 생활이 시작 된다. 71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라는 각오로 추진하라. 83년생 애인과 즐거움은 있으나 마무리가 서운하다. 행운의 숫자 : 15,34

www.cafe.daum.net/sajjo114 ☎11-632-6121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기상천외의 묘수 7보(118~133)

흑 ▲ 유흥주 5단도 이 수를 읽고 쓴웃음을 지으며 119로 질러 반쪽 접수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130까지의 바퀴 치기는 외길이다. 그러나 바퀴치기라고는 하지만 왼쪽 백 대마가 깔린 것은 30여집이 넘고 흑은 10여집을 버는데 그쳐 묘수를 내고도 크게 백이 밀리고 있다.

이것으로 백 대마는 비명횡사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유흥주 5단은 118이라는 기상천외의 묘수가 있었다. 백 118 때 흑이 '참고도'의 1에 이어 잡으려가는 것은 백 2로 함집을 내고 4의 선수를 거쳐 흑의 바깥 공배가 채워진다. 그러면 6으로 밀고나갈 때 7로 막는 수가 없는 것이다. 8로 쫓힌 다음 '가'의 양단수가 있다.

수순중 127은 129에 막았어야 이득이다. 그러면 흑 131도 따끔한 수. 유흥주 5단은 흑 133으로 급습하여 기어이 항서를 받을 태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대방 노블랜드 늦깎이 첫승

전남 대방 노블랜드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뒤늦게 첫승을 올렸다.

전남 대방 노블랜드는 지난 20일 열린 2007한국바둑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한계임을 3-2로 꺾었다. 2-2 상황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선 전남의 한상훈 초단은 이정우 6단을 264수 끝에 백 7집 반으로 제압, 팀에 귀중한 승리를 안겼다.

한상훈은 우승기 전투에서 이 6단의 공세에 밀리는 듯 했으나, 막판 추격전을 펼쳐 전세를 뒤집었다.

전반기를 1승으로 마감한 노블랜드는 앞으로 남은 경기를 전부 이기더라도 포스트시즌 진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953>

I'll Transfer Your Call
지금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A : XYZ Company. May I help you?
B : Hello. May I speak to Mr. Brown, Please?
A : Just a moment, please. I'll transfer your call.
B : Thank you.

A : XYZ 회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B : 안녕하십니까? Brown씨 부탁합니다.
A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B : 감사합니다.

*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 Hold on, please.
* 제 내선(전화)은 ~입니다.
= My extension (number) is ~
*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 I'm sorry for the confusion.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953>

おかげで水(みず)の泡(あわ)になっちゃったよ。
덕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어요

A : がっかりした表情(ひょうじょう)してどうしたの。
B : 来月の研修旅行(けんしゅうりょこう), 予算(よさん)が下(お)りなくて取(と)り止(や)めになったんだって。
A : そう、残念(げんざん)だね。業績(ぎょうせき)が良くないから仕方(しかた)がないよ。
B : 部長(ぶちょう)に頼(たの)まれて、徹夜(てつや)して予定(よじ)表(ひょう)ったのに。おかげで水(みず)の泡(あわ)になっちゃったよ。

A : 맥빠진 표정인데 무슨 일 있어?
B : 다음 달 연수여행,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중지되었대.
A : 그래. 유감이군. 실적이 좋지 않으니가 어쩔 수 없어요.
B : 부장님에게 지시 받아서 잘하여 예정표 만들었는데- 덕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어요.

がっかりする : 실망하다, 낙담하다
予算(よさん)が下(お)りる : 예산이 떨어지다(결재나다)
取(と)り止(や)める : 그만두다, 중지하다
仕方(しかた)がない :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 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43>

在沙发下边呢
소파 아래 있습니다

A : 抽屜(ちゆういん)里边也没有韩汉语词典。
Chūián lǐ biān yě méiyǒu hánhàn cídiǎn.
책주머니 안쪽에도 한한어사전은 없어요.
B : 书架(shūjiǎ)上呢?
Shūjiǎ shàng ne?
책架上 어때요?
A : 书架(shūjiǎ)上只有一本汉英词典。
Shūjiǎ shàng zhǐ yǒu yī běn hānyīng cídiǎn.
책架上 한 한영어사전만 있어요.
B : 我看(wǒ kàn)见了, 韩汉语词典在沙发下边呢。
Wǒ kàn jiàn le, hánhàn cídiǎn zài shāfā xiàbian ne.
저 보았어요. 한한어사전은 소파 아래에 있어요.

A : 서랍 안에도 한중사전이 없어요.
B : 책架上 어때요?
A : 책架上 위에는 한영사전 한권밖에 없어요.
B : 봤다, 한중사전이 소파 아래에 있었어.

书架 [shūjiǎ] 책架子
汉英词典 [hānyīng cídiǎn] 한영사전
沙发 [shāfā] 소파

<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570>

暗中摸索(암중모색)
어두운 암, 가운데 중, 더듬을 모, 찾을 색

암중모색(暗中摸索)은 어두운데서 물건을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상상으로 맞추거나 어림잡하는 것을 비유한다.

당나라 즉전무후(則天武后·690~705) 때 허경중(許敬宗)이란 학자는 성격이 경망하고 오만하여 사람을 만나면 많이 있어 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의 건강증을 비롯하여 말하길, "학문은 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흑시 일부터 그러는 건 아니요?" 하였다. 그러자 허경중이 대답하길, "그대들과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야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순(何遜)·유유자(劉孝綽)·심야(沈約) 같은 문단의 대가들을 만난다면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기억할 수 있소(如暗中摸索可記也)."라고 하였다.(隋書佳話)

암중모색은 줄여서 '암색(暗索)'이라고도 하고, 또 '암중모작(暗中摸捉)'이란 말로도 표현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상대가 눈치 채지 못하게 조사하는 것'도 '암중모색'이라고 한다. 율령대선정국에는 '검증(檢證)의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유권자가 암중모색에 빠지지 않도록 후보자의 선명해 해명(解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한예원(韓喜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

